

2017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성료

7일간 80개 병원과 의료기관 참여...관람객 15만여명 방문 김성군수 "통합의학 토대로 대한민국 건강 1번지 만들 것"

2017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26일 막을 내렸다.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과 함께한 올해 박람회는 '대한민국 통합의학 1번지, 장흥'의 새로운 비전 제시를 목표로 20일부터 26일까지 안양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개최됐다.

2017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입장과 체료가 없는 관람객 중심의 체험형 박람회로 열렸다.

올해는 어린 학생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관람객층을 위한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기를 모았다.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약 15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하고 있다.

행사기간 동안 주제관 컨벤션홀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건강강좌가 이어졌다.

특히, 뮤지컬 어린왕자, 원예치료



협회 세미나, 2017장흥정태전 나눔이 축제, 장흥군민 소통한방 행사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주제관 1층에 위치한 '꿈나무건강증진관'에서는 성폭력 예방, 미세먼지 예방, 흡연 예방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이 진행됐다. '현대의학 통합의학관'과 '한의학 통합의학관'에서는 노년층이 겪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정보제공과 진료체험이 이뤄졌다.

장시중의대부속병원, 원남성중의병원, 군민시중의병원 등 중국(中

國)의 유명 병원들도 참여해 특화된 통합의료 정보를 제공했다.

남부대학교 통합의료학과, 신한대학교 카이로프랙틱, 순천제일대 의료재활과, 한국홍채화중연합회, 문한배꼽호흡테라피 등이 참여한 '보안대체통합의학관'도 관람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그 밖의 전시관에서는 구강건강 관리법, 아토피 예방과 치료체험, 모래상지치료체험 등도 운영됐다.

재활승마체험장에서 운영된 말타기 체험도 학생들과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호응을 받았다.

올해 박람회는 전국 80여개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참여해 수준 높은 통합의학 수준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장흥군은 통합의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 의료관광산업과 휴양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올해 박람회는 통합의학의 새로운 흐름과 개인의 건강상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건강과 치유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장흥이 '대한민국 건강 1번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흥=김종민 기자



"이젠 병원 가는 날이 편해요"

무안군, 내달부터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무안군은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기존 3대에서 4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장애인 콜택시 운영 초기에는 이용자가 1일 평균 2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9월엔 1일 40여명이 이용하는 등 급증하는 콜택시 이용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3급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가 일반택시 요금의 40% 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현재 무안군의 교통약자는 22,610명에 이르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목적은 대부분 병원

에 가는 것으로 교통약자들이 병원에 가는 날을 즐겁고 안전하게 만드는 등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10월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를 개최해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위탁운영할 수탁기관으로 (사)무안군장애인협회를 선정했으며, 위탁사무는 콜택시 운영, 요금수납, 운전종사자 관리 등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교통약자들의 복지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여수시 "비가 오는 날 양심우산 이용하세요"

항일암·시청 등 '대여서비스'

여수시가 관광지를 둘러보는 중 갑작스런 비를 만난 시민과 관광객에게 우산을 빌려준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주요 관광지의 관광안내소 등에서 우천시 우산을 빌려주는 '여수시 양심우산 대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비스 장소는 항일암, 오봉도, 이순신광장, 돌산공원, 흥국사, 낭만버스 등이다. 또 민원서류 발급 등을 위해 시정을 방문한 시민들을 위해 민원실에서도 서비스가 실시된다.

우산이 필요한 시민과 관광객 등은 양심우산대여대장에 인적사항을 적고 사용 후 자율적으로 반납하면 된다.

시는 먼저 7곳에서 운영 후 호응도와 우산 회수율 등을 분석한 후 운영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여수시, 제16회 재난대응 응급처치 경연대회 마쳐

여수산단 21개 석유화학업체 참여...보호장비 착용법·기도유지·심폐소생술 등



여수국가산업단지 종사자들이 여수시장이 재난대응 응급처치 경연대회에 참여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한 대처능력을 키웠다.

여수시에 따르면 25일 흥국체육관에서 여수산단 21개 석유화학업체 종사자 2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

16회 여수시장이 재난대응 응급처치 경연대회가 열렸다.

이날 경연대회는 크게 '각종 보호장비 착용법', '기도유지 및 상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조작법', '환자 운반법' 분야로 진행됐다. 산단 종사원들은 평소 숙지하고 있던 여러 응급처치 방법들

을 경연대회를 통해 실천처럼 연습했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여수소방서 방호구조과·대항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여수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관들은 최우수상에 삼남석유화학(주), 우수상에 여천NCC(주) 장려상에 금호석유화학여수고무공정(주) 롯데케미칼(주)을 선정했다.

최우수팀에게는 우승기와 함께 여수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시상금 200만 원, 우수팀에게는 100만 원, 장려상에게는 각 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경연대회 현장에서는 화학물질 차단복, 지능형 화재 진압 시스템, 가스·유해화학물질 측정기 등 안전용품 체험·전시부스도 운영됐다.

시 관계자는 "여수산단 관계자들이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중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진도 쌍계사에서 내일 '산사 음악회' 개최

'가을밤의 힐링 콘서트' 주제 대웅전 앞 특설무대

천년고찰 진도 쌍계사에서 '산사 음악회'를 연다.

진도군은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산사에서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느낄 수 있는 2017 쌍계사 산사 음악회를 오는 28일 오후 7시에 천년고찰인 진도 쌍계사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가을밤의 힐링 콘서트'라는 주제로 쌍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릴 이번 음악회에서는 초청가수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진도군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천년고찰의 상록수림(천연기념물 107호)과 운림산방 등이 어우러진 쌍계사의 고요한 밤에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청찰산 숲속 산사 음악회에서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느껴보세요"라고 말했다.

한편 산사음악회 당일 착한 스님 우동으로 유명한 운전스님이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동 나눔 행사도 무료로 실시한다.

진도=조상용 기자

지역광고·대행사·정문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